

저장된 페이지 보기

## 조광페인트 분쟁 점입가경.. "배임-무고" 법정공방

[이데일리] 2001-03-20 03면 1659자

[edaily] 조광페인트의 경영권 분쟁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되는 등 점입가경이다. 조광페인트 m&a를 시도하는 개인주주연합측이 지난 19일 조광페인트가 직원들에게 자사주를 무상지급한데 대해 회사측 양성민 대표이사 등 5명을 부산지검에 고소한데 이어 20일에는 조광페인트 대주주측이 개인주주연합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주주측은 나아가 개인주주연합이 시세조종 및 증권거래법 등을 위반했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한데 이어 검찰에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조광페인트 경영권분쟁이 법정으로 옮겨지고 있다.

개인주주연합측은 20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조광페인트 대주주측이 자사주 2만주를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것은 대주주 개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주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며 "회사측 양성민 대표이사 외 이사 4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혐의로 19일 부산지검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개인주주연합은 "대주주가 회사재산을 적절히 관리해야 함에도 자사주 8만주중 2만주(7억1900만원)를 지난해 12월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으로 무상지급했고 또다시 임직원 상여금 명목으로 2만주(10억40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올해 회사측 액면배당율이 15%(4억5000만원)임을 감안할 때 대주주 개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급한 자사주 17억2300만원은 회사 및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주주연합은 또 "주주연합측이 선임한 이사와 감사의 출근을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와 업무시간중 임직원을 동원해 주주들에게 의견권 대리행사(위임장)를 권유하는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를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개인주주연합의 주장에 대해 조광페인트 대주주측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측 법률대리인인 벤티지법률사무소의 이경훈 변호사는 "자사주 상여금 지급과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고 개인주주연합측이 자사주 지급으로 손실을 끼쳤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개인주주연합측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자사주를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은 올해 임금인상분을 자사주로 대신 지급한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임금을 15.5% 인상할 예정이었으며 지난해 총급여 79억5500만원의 15.5%는 12억원 가량이어서 자사주 지급 규모 10억4000만원을 감안하면 오히려 회사가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주주연합측이 지난해 직원들의 총급여가 30억원 가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는 사무직원 급여이며 노무비 형태로 생산원가에 포함되는 생산직원 급여까지 포함하면 79억5500만원이어서 자사주 지급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은 틀린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밖에도 "현재 금감원에 진정서 형태로 제출한 개인주주연합측의 시세조종 및 증권거래법 위반사항을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광페인트 경영권분쟁은 "자사주 지급을 둘러싼 배임 및 무고 법적공방"과 "시세조정 및 증권거래법위반을 둘러싼 법정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대주주측의 주총연기 이사회결의와 16일 개인주주연합의 단독주총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도 법정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 조광페인트 분쟁은 3가지 방향에서 법적다툼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이데일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